

본문: 요한복음 1 장 29-34

제목: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1.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이전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좀 푹푹해 보이긴 했지만 그는 볼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크지도 않고 잘 생긴 외모도 아니었어요(사 53:2). 저희 어머니는 먼 친척이라며 이 사람의 가족을 특별히 잘 보살폈어요. 저희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의 집과 저희 집은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저는 어렸을때부터 출가하여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동안 그를 만날 수 없었죠.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저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지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사막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우리 공동체에 몇 날을 머물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는 죄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마음 아파했죠. 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애고 참 자유를 그들에게 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어요. 그가 이해한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수 없게 만드는 총체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와 무의지 상태라 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죄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한탄했어요. 이스라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일터가 없어서 세리가 되고 군병이 되며 창녀가 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안타까워 했죠.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했지만 그건 꿈에 불과했고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죠. 그는 이 죄를 어떻게 없애고 해결할지 고민했고 이스라엘 전국에 진정한 회개의 운동을 함께 일으켜 나가자고 제게 제안했죠.

그때까지도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사막에 홀로 남아 이사야서 40 장에서 66 장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했죠. 거기서 고난 받는 종으로서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사야서 말씀에서 묵상한 고난 받는 종의 모습과 이 예수라는 청년의 모습이 오버랩에 되는 순간이 있었지요. 아니 그럴리 없어

하며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이미지와 내가 아는 예수라는 청년이 너무 닮아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졌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저는 회개의 세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막을 벗어나 요단강으로 갔어요. 저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친척 예수가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 아니겠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내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기어코 저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어린양이로구나.

2.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 요약을 세례 요한의 독백 형식으로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31 절과 33 절은 동일한 표현의 반복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몰랐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 관계였고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절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의 사명이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요한을 광야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고 그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요한은 예수의 정체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줄 중보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물 세례 운동을 전개했을 것이구요. 예수님은 직접 요한을 찾아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셨을 때 요한은 결국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의 눈 앞에서 실현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the only-begotten God)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에 대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는 겁니다. 어린양이 구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어린양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 본질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인가요? 제가 1년 전에 출애굽이 세 단계로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출애굽은 몸의 탈출입니다. 두번째 출애굽은 정신과 가치관의 탈출이죠. 세번째 출애굽은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바꾸자면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인 몸의 탈출은 파라오의 통치가 있는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홍해 도하라는 두 이벤트와 마주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어린양을 죽여 나온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피해 갔죠. 재앙을 피하여 이집트를 벗어나던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홍해의 물을 가르셨고 그들은 물을 통과함으로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습니다.

두번째 출애굽의 단계는 정신과 가치관의 탈출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몸이 이집트를 벗어났대도 그들의 멘탈은 여전히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 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언약 갱신의 예식이었죠. 하나님은 대속죄일이라는 언약 갱신의 예식을 1년 주기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어린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 희생을 시킵니다. 한 마리는 제사에서 번제로 희생되고, 나머지는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일컬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쓰인 개념은 이 아사셀로 희생되는 예수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은 몸과 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약속의 땅 위에 세우는 것이었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율법의 실천을 통해 언약 공동체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희생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함이란 것이죠.

3.

요한의 물세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징하여 행해진 예식입니다. 물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물을 통과함으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 당시의 사람들도 물에 잠겼다 나오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초대되었죠. 고전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물로 행하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홍해를 통과하는 물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가문이나 자격증명서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12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어린양 모두 출애굽의 컨셉과 연결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라구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 차버립니다.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가 실현되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시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격입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들을 통해 역사 속에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삼는 것이고 인간의 번영을 위해 다른 인간의 삶을 갈아 넣어 희생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국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대안적이고 대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국의 시스템과 가치에 반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전통과도

맞서셨습니다. 간단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맞서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는 의와 공도(right and just)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의와 공도는 히브리 말로는 미쉬파트와 쯤다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쉬파트는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미쉬파트입니다. 쯤다카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모두가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는 언약 공동체의 가치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만 잘 실천되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의 모든 율법에는 미쉬파트와 쯤다카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만 잘 실행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가 되고 모두가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언약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죠.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북 이스라엘보다 좀 더 오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유다사람들이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 와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생각해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구약의 말씀들이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겁니다. 그렇게 기대감으로 보낸 세월이 600 년이나 되었던 거구요. 세월이 점점 흐르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지 않자 더욱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구세주가 오셔서 그들을 여러 민족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배제와 분리를 선택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못지키는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병든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 다 분리시켜야지 그들 공동체의 기록의 평균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공동체 밖으로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 세리, 창녀 등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열시키는 탐욕과 배제의 논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참상을 그냥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갈가리 찢어진 언약 공동체를 이대로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뤄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신 겁니다.

4.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가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이 근본 정신은 외면해버리고 겉모양만 지키려고 노력한 꼴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 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배제하고 분리시키며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을 선택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죠. 이 모순이 많은 사회악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의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어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기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먹고 살기 위해 세리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군병이 되어 밥벌이를 해야만 했죠.

예수님은 죄짓고 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 언약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죄책을 지고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탐욕과 배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리고 환대와 포용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킬 결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린양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한책임의 자의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가 갈릴리에서 자란 환경 탓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은 시간관계상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면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린 자들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접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의 괴성, 병든 자들의 탄식, 지주들에게 매맞는 소작인들의 피눈물, 동전 한 닢을 찾기 위해 밤을 세워야 하는 여인의 애절함이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과 연결 속에서 예수님의 무한책임적인 자의식이 커져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 한복판에서 자라며 단련된 감수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적 고난을 감수할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도록 했을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목상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방직 공장에서 비참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접하면서 프란체스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준 모든 비싼 옷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가 되었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도 아틀란타에서 태어나 목사의 아들로 넉넉하게 자라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피부색 때문에 온갖 차별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흑인들의 탄식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향한 대속적인 고난을 감수하기로 하며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쳐나가죠. 인간의 비참한 삶과 굴욕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구현되는 언약 공동체를 이 땅위에 만들어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크고 신앙이 깊다해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속적인 삶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5.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짐을 지고 대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바울의 이 말씀이 본문과 연결되어 많은 울림을 제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나의 짐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원리가 바로 남의 짐을 지신 것이었겠습니까? 죄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죄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존중받게 하기 위해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타자의 고통과 불행에 연결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어린양의 감수성이 생겨나기 십상입니다. 타자의 고통과 불행을 나 몰라라 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병원인 메이요 병원이 설립된 이야기도 결국 그런 것 아닌가요? 토네이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시카고의 의사가 아예 이곳에 눌러 앉아서 생긴 병원이 메이요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기도처를 내어주었던 수녀들의 이야기가 메이요의 탄생 배경이 아니었던가요? 결국 남의 짐을 져준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몸과 함께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레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맺은 일상의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내 삶은 아직 살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라는 외침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이 울리고 이릅니다. 어린양을 따라 분리와 배제가 아닌 공감과 환대와 포용으로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는 책임있는 언약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눔주제>

1.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자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출애굽의 세 과정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몸, 정신과 가치관, 언약 공동체를 이룸)
2. 출애굽의 완성인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남의 짐을 지는 삶의 방식이 필수적입니다(갈 6:2). 나는 어떻게 남의 짐을 지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